

학부(과)	항공교통과	학번	2022127048	성명	최00
제목	토익 독학러가 900점 넘기고 토익 졸업한 방법				

○ 에세이 작성 동기(추천 이유 등)

대학을 다닐 때 예외 없이 모두가 거쳐 가야 하는 관문, 토익. 나 자신은 예외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토익 900점은 분명 거뜬히 넘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음을 몸소 깨닫게 되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작정 시작한 토익 수험생활을 마침내 930점을 취득한 끝에 마무리 지었다. 부끄럽지만 필자는 2년간 13번의 시험을 치렀다. 단순 반복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취득한 점수가 모두가 목표로 삼는 점수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90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길고 긴 토익 수험을 마칠 수 있게 만들어준 학습법이 분명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그간 들인 시간과 돈이 얼마인가! 혼자 무덤까지 갖고 들어가기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정말 조금이라도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졸업인증을 위해서든, 교환학생을 위해서든, 혹은 취업을 위해서든, 토익이 장애물이 아니라 믿음직한 아군이 되기를 응원한다.

○ 어떤 교재를 이용하였는가

본격적인 학습법에 앞서 사용했던 교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은 교재를 사용하였다.

1. ETS 기출 문제집
2. 해커스 실전 문제집
3. 간단한 문법책 한 권
4. ETS 단어 책 한 권이었다.

절대적인 문제풀이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더 많은 문제집을 풀어봐도 좋다. 하지만 YBM이 출판한 ETS 기출 문제집을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첫 번째 이유로, 교재에서 제공하는 듣기 음성과 실제 시험장에서 듣기 음성이 똑같다. 같은 경우가 녹음을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출인 만큼 실제 토익 시험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토익에 대한 감을 기르기 매우 좋다.



○ 나만의 학습법 - 준비물

준비물은 연필과 기출 문제집 그리고 제미나이다. 기출을 풀 때 어떤 필기구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4B연필을 써보는 것을 추천한다. OMR 마킹할 때 사용하기 좋다. 또한 제미니는 나만의 과외선생님 역할을 담당한다. 필자는 토익을 독학했다. 독학의 단점은 모르는 게 생겨도 물어볼 곳이 정말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제미니는 이 점을 보완해준다. 토익 시험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틀린 답을 아는 것만 설명하는 할루시네이션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은 토익 공부에 특화된 선생님 역할을 해달라는 조건을 삽입한 뒤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선생님 역할로 이용하였다. 다른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다만 필자는 대학생 1년 무료 플랜을 활용하고자 제미니를 선택하였다. 단어 책은 선택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900점을 넘기는 데 있어서 기출 문제집 내에 있는 단어만 모두 익혀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도 구매한 단어 책을 거의 외우지 않았다.

○ 나만의 학습법 - RC : 직접 써보자

토익 기출 문제집의 지문을 직접 손으로 써가며 해석해보는 것이다. 우리는 기출 문제집을 푸는 것뿐만 아니라 천천히 음미할 것이다. 토익 스타일을 몸에 체화시키는 것이다.

기출을 통해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오답을 고칠 것이다. 이때 오답을 고칠 때 손으로 직접 써가며 해석하는 단계를 추가하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좋다. 문제를 풀기 위해 빠르게 눈으로만 읽어내려갔던 지문을 천천히 한 문장씩 읽으면서 손으로 해석을 써 내려 가보자. 만약 시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촉박하다면 파트 5와 6은 천천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파트 7은 틀린 문제의 지문만이 아니라 모든 문장을 직접 손으로 써서 해석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학습법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눈으로만 읽으면서 해석할 때는 대강 이해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손으로 쓰고 보면 우리나라 말로 전혀 말이 되지 않거나 어감상 매우 어색한 경우가 생긴다. 또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단어가 한국어로 써보자니 번역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직접 써보는 것을 통해 모르던 단어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익힐 수 있으며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지문 내에는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는 공손한 영어표현과 비즈니스 용어, 그리고 수많은 다의어가 등장한다. 문장 구조 내에는 형식 동사와 수동태 분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등등 문법에 해당하는 요소도 녹아 들어있다. 그리고 파트 7을 해석하면서 지문에서 문제의 근거지문을 찾는 연습을 겸해보자. 토익 문제의 출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중간에 모르는 부분은 빠짐없이 제미니에게 물어보자. 친절히 알려준다.

기출문제 한 권을 빠짐없이 해석해보는 것을 목표로 해보자. 마치고 나면 생각 이상으로 영어문장이 잘 읽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파트 5와 파트 6 문제도 자세한 문법 규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토익 기출에서 자연스러운 해석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오답의 부자연스러움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직접 손으로 써보는 해석 연습을 할 때, 한국어 어순에 맞게 쓰려고 바꾸거나 많은 의역을 넣려고 하지 말자. 직접 써보는 것의 목적은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부자연스러움과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나만의 학습법 - LC : 이것마저 독해다

파트 3 파트 4를 잘하려면 독해를 잘해야 한다. 파트 3과 4에서는 듣기 한 묶음에 문제가 3개, 각 문제당 선지가 4개다. 짧은 시간 내에 15문장을 읽어내야 한다. 미리 선지를 다 읽는다면 배경지식을 갖게 되어 듣기문제의 맥락을 더 잘 잡을 수 있게 된다. 설령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듣기문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맥락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답을 골라낼 수도 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 여유 시간에 또 15문장을 읽는 사이클을 반복한다. 15문장을 미리 읽는 것만으로도 오답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실제 시험장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질문과 선지를 주어진 시간 내에 모두 읽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두자. 일부러 시끄러운 환경에서 듣기를 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못들은 문제는 과감히 버리고 다음 문제를 위한 선지를 읽어내려가는 과감함을 키워야 한다.

필자는 파트 3, 4보다 파트 2가 어려웠다. 파트 2는 의문문으로 인해 도치된 문장을 해석해 내야 한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되 파트 2 문제 듣기의 첫 부분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보자. 질문의 첫 부분이 의문사인지 의문문인지, 의문문이라면 조동사인지 BE 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했고, 종류별로 정리하여 의미를 외었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19번 문제쯤을 기점으로 문제의 정답이 꼬아서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 파트 2의 초중반까지는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해주고, 그 뒤로는 질문에 대한 우회적인 답변이 나오는지 유심히 들었다.

RC에서 충분히 독해연습을 해왔다면, 자연스럽게 영어식 문장 구조와 토익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머리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듣기문제에서 들은 영어문장을 머릿속에서 온전한 한국어 문장으로 구성하려 하지 말고 듣는 대로 직독직해를 해보자.

○ 학습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올해에는 총 4번의 시험을 치렀다. 2번째 시험 이후 직접 써보기 학습법을 고안해 적용했으며 덕분에 930점이라는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오랜 기간 80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체기를 거듭하다 올해 극복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향상을 경험한 만큼, 또 다른 누군가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OEIC	2025.12.07(월)	140744	Total 930 (LC 490, RC 440)
TOEIC	2025.11.30(월)	115262	Total 880 (LC 455, RC 425)
TOEIC	2025.10.18(토)	130001	Total 830 (LC 460, RC 370)
TOEIC	2025.07.27(월)	158213	Total 810 (LC 400, RC 410)
TOEIC	2024.12.29(월)	125131	Total 865 (LC 445, RC 420)
TOEIC	2024.12.15(월)	154322	Total 850 (LC 445, RC 405)
TOEIC	2024.08.25(월)	142617	Total 870 (LC 450, RC 420)
TOEIC	2024.08.11(월)	145930	Total 840 (LC 425, RC 415)
TOEIC	2024.06.16(월)	145405	Total 820 (LC 420, RC 400)
TOEIC	2024.05.26(월)	156072	Total 835 (LC 410, RC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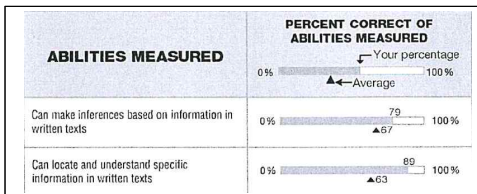
○ 최종 소감

1. 계획대로 공부하지 못해 자주 벼락치기를 했던 사람
2. 영상강의를 수강하면 항상 몇 주 치씩 밀리는 사람
3. 학원에 다니기에는 돈과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안타깝게도(?) 위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강을 수강하려 2번 정도 시도해 보았으나 총 16강 남짓의 영상 중 1강을 끝내 넘기지 못했

다. 한 달 전에 시험을 신청해놓고도 꼭 1주일이 남아서야 겨우 책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800점대의 실력이라면 누구든지 조금만 보완하면 나처럼 오래 걸리지 않고 900점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소소한 팁을 남기고자 한다.

1. 토익 시험을 보기로 마음먹었을 때, 3번 정도 연속으로 시험을 응시하면 좋다. 벼락치기를 좋아해도 강제로 오랫동안 긴 호흡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다.
2. 듣기 할 때 파트 2까지만 실시간으로 마킹하고, 파트 3과 4는 LC가 끝나고 RC 넘어갈 때 마킹하도록 하자. 1~2분 아끼려다가 문제를 놓친다.
3. 파트 7 공부법에서 근거지문을 찾는 연습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해당 유튜브 링크를 참고해도 좋다. <https://www.youtube.com/watch?v=LZM3OPHB1wQ> (아무튼영어)
4. LC는 5개 정도는 틀려도 만점인 495점이 나온다고 한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시원하게 날려라. 다만 읽기는 틀린 수만큼 쑥쑥 떨어지니 시간 관리를 잘해 못 푸는 문제가 없도록 하자.
5. 토익 시험을 응시하고 나면 시험 성적표 아래에 어떤 영역이 미흡했는지 나온다. 파트별로 몇 문제를 틀렸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보자



실제 공부에 활용했던 제미나이 사진과 교재사진은 따로 첨부한다.